



보 도 자 료

배 포 일	2025. 7. 10.(목) 조간	담당부서	자산조사부
책 임 자	이 근 호 본부장	전 화	02-6360-4860
담 당 자	구 민 수 부 장		02-6360-4881

한국사회보장정보원-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의 고용-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- 맞춤형 급여 안내 활용 및 소득·재산 정보 연계 강화 -

한국사회보장정보원(원장 김현준)은 7월 9일(수), 한국장애인고용공단(이사장 이종성)과 함께 ‘장애인의 고용·복지 증진’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(서울 중곡동) 20층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.

사회보장정보와 장애인 고용정보 연계해 ‘맞춤형 급여 안내(복지멤버십)’ 활용

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사회보장정보와 장애인 고용정보를 연계하고, 맞춤형 급여 안내(복지멤버십) 활용 및 소득·재산조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. 이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과 복지를 함께 촉진하고,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.

양 기관은 특히 고용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·재산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연계할 예정이다.

맞춤형 급여 안내(복지멤버십)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추가 등 공동 홍보활동 추진

이번 협약에는 ‘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’ 신청자를 대상으로 복지멤버십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, 장애인 가구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. 양 기관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고용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연계하고,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.

‘맞춤형 급여 안내(복지멤버십)’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으로,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생애주기별로 안내하는 제도다.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이래 현재 전 국민 중 1,164만 명이 가입하여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고 있다.

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“이번 협약을 통해 고용과 복지 간 협업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,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[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(오른쪽)과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이
장애인 고용-복지 증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]